

안녕하세요? 저희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는 2002년 2월 4일 첫 회의를 가지면서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수 성폭력 사건은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총학생회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의 교수와 학생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극히 어려워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사건 해결이 해결된 경우가 적다보니 사건 해결의 선례가 자료화되어 남아 있지도 않고, 사건의 특수성에 맞는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에 문제 의식을 공유한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는 교수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연대행동, 정보공유 및 자료의 보유, 사건해결의 원칙수립을 위해서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이하 교성뿌연)를 결성하여, 이제껏 5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경희대 L교수 성폭력 사건, 동국대 K교수 성폭력 사건, 서강대 K교수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희대 건은 학내 공론화를 진행 중이며, 동국대 건은 3월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서강대 건은 형사 건으로 정식 기소 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건 전개에 발맞추어 저희는 2002년 3월 15일 공동기자회견 및 거리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침묵에서 외침으로>라는 제목 하에 오전 11시 동국대학교 불상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으며, 오후 2시에 신촌 연세대에서부터 서강대까지 거리시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교성뿌연은 현재까지의 교수 성폭력 사건의 진행 과정을 밝히고, 교성뿌연의 요구 사항을 밝힐 생각입니다. 교성뿌연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교수성폭력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십시오.
2. 총장 및 교수진은 교수 사회의 명예와 도덕성을 위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십시오.
3. 총장 및 교수진은 교수성폭력 사건의 예방 및 실질적인 징계를 위하여, 반성폭력 학칙을 실효성 있게 제정, 보완하십시오.
4. 학생들은 성폭력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이번 기자회견은 이제껏 묻혀있던 교수 성폭력 사건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대학이 더 이상 성폭력이 묵인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성뿌연은 각 단체 및 개인에게 교성뿌연을 지지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저희를 지지하여 공동기자회견 때 성명서를 발표해 주십시오. 공동기자회견 때 발표하는 교성뿌연의 성명서에 연서를 해주셔서 저희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또 공동기자회견 및 거리시위에 참석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서 성폭력 없는 대학, 나아가서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